



Cover Story

『Klein Welten IV』 일부 발췌

바실리 칸딘스키 Vassily Kandinsky

현대미술의 선구자이자

순수 추상미술의 아버지 바실리 칸딘스키.

그의 화집 《작은 세계들》에 실린 이 네 번째 작품을

그림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양각색의 무늬와 색상이 사용된 석판화다.

작품을 통해 세밀하고 무수한 독립적 단위로 구성된,

장엄한 개체로서의 세상에 대한

칸딘스키의 시선을 엿볼 수 있다.



Market Watch

2019

December

Vol. 15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Monthly Journal

중소벤처기업 투자·M&A 성공 사례

투자 유치의 트리플 달성을
향해 한 번 더 뛰어오르는
트리플

- 이상용 최고재무관리자(CFO)

Trust your gut

“당신의 ‘배짱’을 믿으세요.”

- Sara Blakely

사라 블레이클리

두독한 배짱만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이뤄낸 스펡스(Spanx)의 CEO 사라 블레이클리(Sara Blakely). 그녀는 스물일곱 살에 로스쿨 입학시험에 두 번 낙방한 후 외판원으로 일했다. 판매에는 꽤 소질을 보인 반면 일 자체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그녀는 창업을 결심한다. 이때 그녀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한 일이 '최소 1년간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주변의 걱정과 경고가 뒤섞인 의견, 그로 말미암은 자기 의심과 내적 갈등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다. 결국 그 배짱으로 수만 번의 'No'까지 극복한 사라 블레이클리는 '발 없는 체형보정 스타킹'으로 회사의 급성장을 이끌어냈고 억만장자 대열에 올랐다.

KVIC MarketWatch 관련 유의사항

KVIC MarketWatch는 모태펀드 등의 운용 성과를 공개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추천 또는 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본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본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편, 당사는 본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의견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 및 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 있습니다. 언론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이를 통하여 지득 또는 파생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인용, 복제, 변형, 배포,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벤처투자(주)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December

Vol. 15

KVIC MarketWatch

「KVIC MarketWatch」는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국벤처투자(주)가 한국모태펀드를 운용하며 쌓아온 시장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 하는 월간 저널입니다.

Contents




03 모태 출자펀드
결성, 투자, 회수 동향



15 중소벤처기업
투자 유치 방법 안내

25 중소벤처기업
투자·M&A 성공 사례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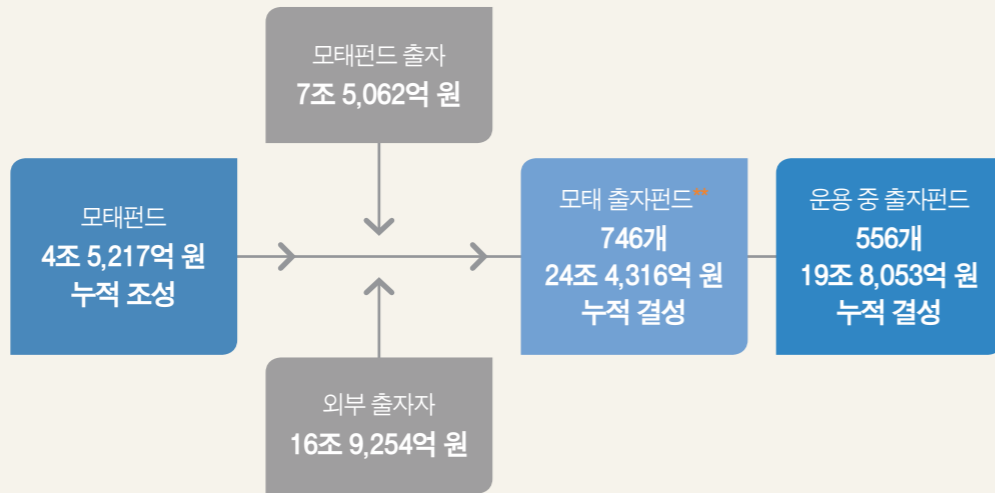
해당 보고서는 매월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19년 11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01

모태펀드 개요

2019년 11월 말 현재 한국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의 누적 조성재원은 총 4조 5,217억 원이며, 16조 9,254억 원의 외부 출자금을 유치하여 누적으로 24조 4,316억 원 규모, 총 746개 출자펀드를 결성하였다. 이 중 운용 중인 출자펀드는 556개, 19조 8,053억 원 규모이다. 모태펀드 설립 이후 현재까지 746개**의 출자펀드를 통해 5,939개사*에 총 17조 8,423억 원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그림 1 모태펀드 운용 현황



* 전체 투자 실적은 업체 수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창업투자조합(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 기업구조조정조합(CRC), 개인투자조합



모태펀드 성과

모태펀드에 4조 5,217억 원을 출자하여 총 746개,
24조 4,316억 원 규모의 출자펀드를 조성



모태펀드 출자금 대비
승수효과는 5.4배

02

모태 출자펀드 결성

모태 출자펀드
신규 결성 조합
(2019년 11월)

2019년 11월 신규 결성 펀드는 총 18개, 4,230억 규모이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로 결성된 펀드는

'2019KIF-스톤브릿지혁신기술성장TCB투자조합(GP: 스톤브릿지벤처스)'로 765억 규모이다.

표 1 2019년 11월 신규 결성 모태 출자펀드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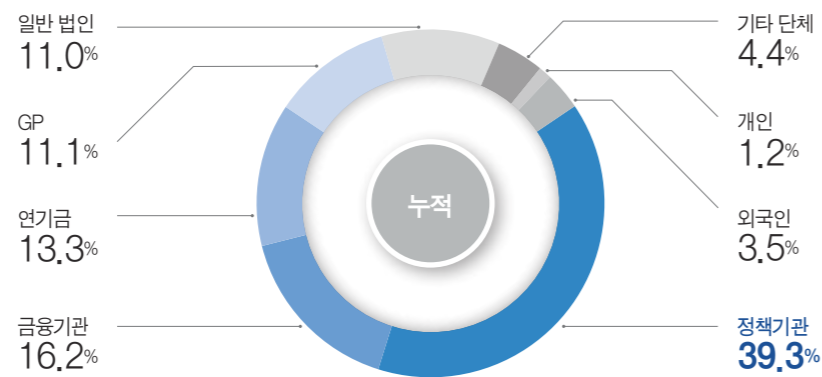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 유형	대표 운용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혁신모험	창업 초기	어니스트 스마트시티 첨단산업 투자조합	KVF	어니스트벤처스	190	100	11.22
혁신모험	창업 초기	엘앤에스 10호 Early Stage III 투자조합	창투	엘앤에스벤처캐피탈	205	100	11.11
혁신모험	창업 초기	SETI-KIF창업투자조합IV	창투	세마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273	120	11.13
혁신모험	창업 초기	패스파인더 스타트업 투자조합	창투	패스파인더에이치	200	120	11.15
중진	민간 제안	KAI-KVIC 스마트공장 투자조합	신기술	코리아에셋투자증권	300	148	11.22
중진	민간 제안	이앤벤처3호 스마트투자조합	KVF	이앤벤처파트너스	200	120	11.14
중진	여성기업	DKI Growing Star 5호 투자조합	창투	대교인베스트먼트	220	120	11.07
문화	콘텐츠 민간 제안	대교 콘텐츠 융합 전문 투자조합	창투	대교인베스트먼트	200	100	11.29
문화	출판	디에이밸류-에스투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신기술	에스투엘파트너스	110	70	11.04
특허	IP 기반 스타트업 육성	이앤벤처2호 IP투자조합	창투	이앤벤처파트너스	130	75	11.04
문화	청년콘텐츠	보광 청년창업 콘텐츠 투자조합	KVF	보광창업투자	150	84	11.22
문화	콘텐츠 민간 제안	유니온K-문화콘텐츠 투자조합	창투	유니온투자파트너스	300	150	11.25
지방	지방기업	미래지구 창업투자 제2호 개인투자조합	개인 투자조합	미래과학기술지주	70	35	11.25
중진	스마트공장	케이티스마트공장투자조합	신기술	KT인베스트먼트	170	100	11.06
지방	지방기업	WE지방기업육성펀드1호	KVF	위벤처스	150	90	11.25
지방	지방기업	다담 대전 성장지원 1호 투자조합	창투	다담인베스트먼트	100	56	11.20
특허	특허기술 사업화	2019KIF-스톤브릿지혁신기술성장 TCB투자조합	창투	스톤브릿지벤처스	765	56	11.15
특허	특허기술 사업화	퀀텀5G특화4차산업 고급기술펀드	KVF	퀀텀벤처스코리아	497	28	11.28

출처: 한국벤처투자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누적)**

2019년 11월 현재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자 구성(누적)은 [그림 2], [표 2]와 같다.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9조 6,107억 원(39.3%)을 출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금융기관 3조 9,611억 원(16.2%), 연기금 3조 2,466억 원(13.3%)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신규 결성된 출자펀드의 경우, 정책기관의 출자 규모가 9,716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금융기관(3,740억 원)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림 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출처 : 한국벤처투자

표 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2019년 11월, 누적)

구분	단위 : 억 원								합계
	정책기관	금융기관	연기금	GP	일반 법인	기타 단체	개인	외국인	
2019. 11	9,716	3,740	1,380	1,824	2,870	1,244	134	1,699	22,608
누적	96,107	39,611	32,466	27,073	26,894	10,681	2,930	8,554	244,316

조합원 구분	상세 분류(KVCA 기준 참고)
정책기관	정부, 지자체, 모태펀드, 기타모펀드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연금, 공제회
GP	창투사, 신기술, LLC 등 업무집행조합원
일반법인	영리 목적의 법인
기타 단체	협회,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단, KIF투자조합, 성장사다리펀드
개인	일반개인
외국인	외국 소재 개인 및 법인

출처 :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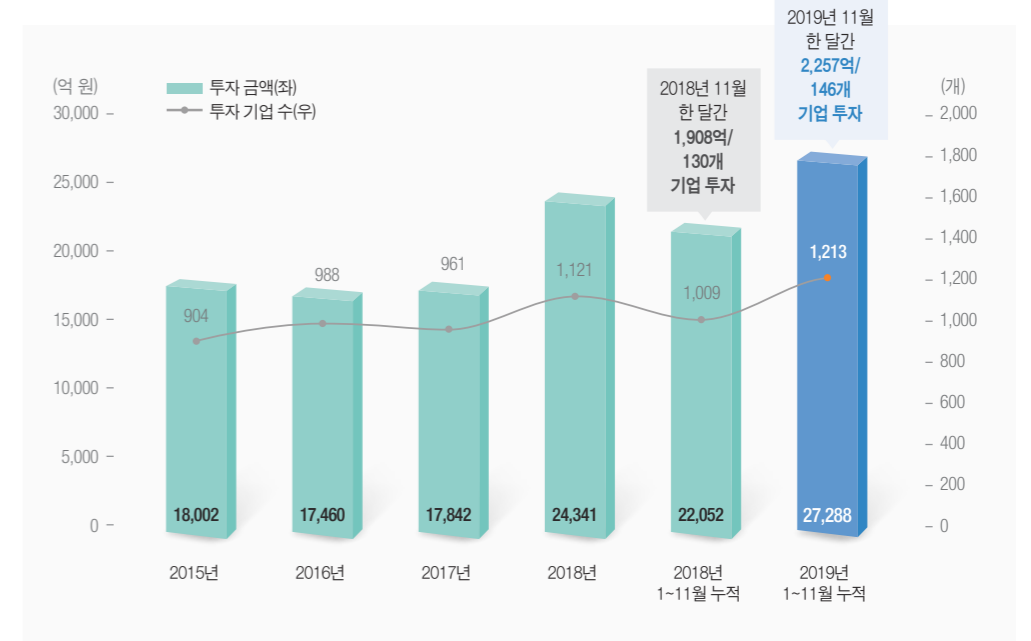
03

모태 출자펀드 투자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동향
(2019년 1~11월)**

2019년 1~11월 기간에 328개 모태 출자펀드가 1,213개 기업에 총 2조 7,288억 원을 투자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금액 기준으로 23.7%, 기업 수 기준으로는 20.2% 증가했다.

그림 3 최근 5년간 및 2019년 1~11월 누적 투자 추이



출처 : 한국벤처투자

* 2019년 11월 말 기준 데이터
** 2015~2018년 투자금액은 해당 기말시점 고정 금액

**투자 금액
상위 기업 및
업종별 투자 현황
(2019년 11월)**

2019년 11월 한 달간, 모태 출자펀드에서 투자한 전체 투자 건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개의 투자기업당 1.4개 펀드가 15.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금액 상위 10개 기업은 기업당 평균 69.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 서비스 19.4%(438억 원), 소프트웨어 17.6%(397억 원), 의료용 물질/의약품 10.0%(226억 원), 영상(프로젝트 투자 포함) 8.9%(202억 원), 도소매업 8.9%(202억 원)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투자 유형별로는 우선주 72.4%, 보통주 15.6%, CB 7.0%, 프로젝트 투자 4.5%, BW 0.4%의 비중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표 3 2019년 11월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금액 상위 10개사

순위	투자기업명	업종 분류	투자 출자펀드 수	투자금액
1	OOOOO	정보 서비스	4	142
2	OOOOO	정보 서비스	1	82
3	OOOOO	교육	7	70
4	OOOOO	영상	4	70
5	OOOOO	정보 서비스	1	70
6	OOOOO	부동산/임대	2	60
7	OOOOO	의료용 물질/의약품	4	51
8	OOOOO	의료기기	4	50
9	OOOOO	소프트웨어	2	50
10	OOOOO	정보 서비스	1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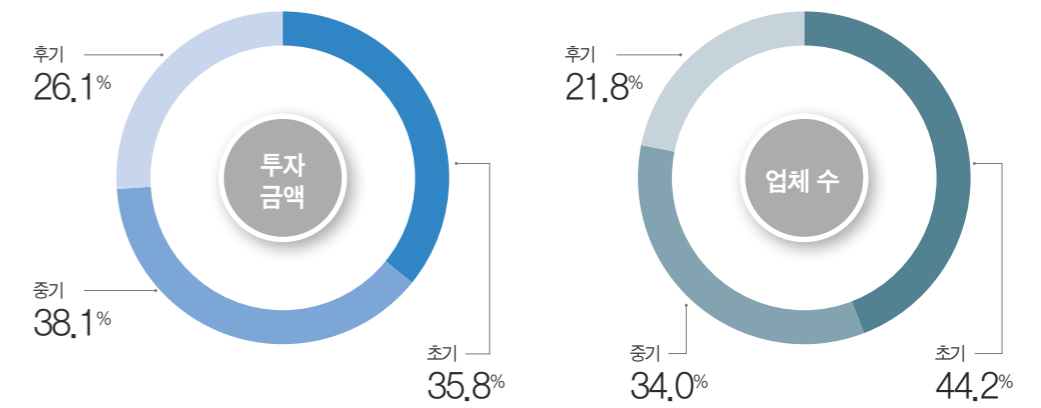
단위: 개, 억 원

출처: 한국벤처투자

**업력별
신규 투자
(2019년 1~11월)**

2019년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를 업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에는 9,782억 원(35.8%), 3년 초과 7년 이하인 중기기업에 1조 390억 원(38.1%), 창업 후 7년 초과된 후기기업에 7,116억 원(26.1%)이 투자되었다. 반면, 업체 수* 기준으로 업력별 신규 투자를 살펴보면 초기기업(44.2%), 중기기업(34.0%), 후기기업(21.8%) 순이다.

그림 4 2019년 11월 모태 출자펀드 업력별 신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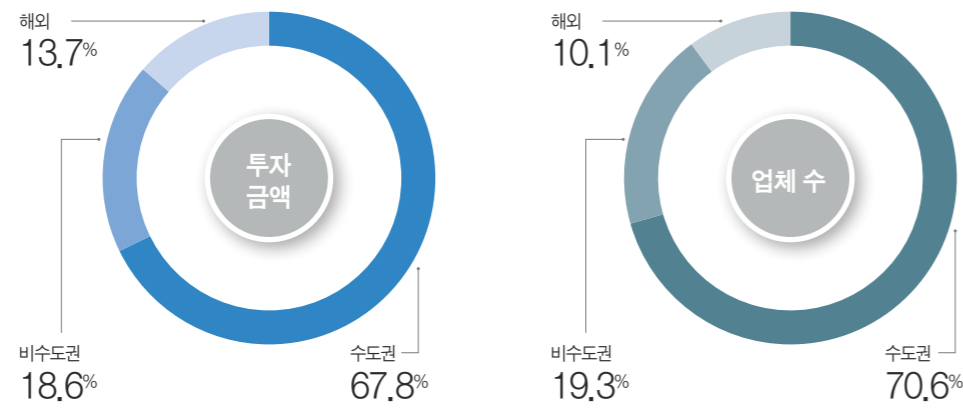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 총 업체 수 1,213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지역별
신규 투자 및
업종별 신규 투자
(2019년 1~11월)**

2019년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가 1조 8,493억 원(67.8%)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는 5,065억 원(18.6%), 해외 소재 기업 투자는 3,731억 원(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기업 투자가 1조 4,22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해외 소재 기업 투자 3,731억 원, 경기 소재 기업 투자 3,587억 원의 순이다.

그림 5 2019년 11월 모태 출자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



출처 : 한국벤처투자

* 총 업체 수 1,213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2019년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ICT서비스 업종으로 총 7,171억 원이 투자되어 전체 투자 규모에서 26.3%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바이오/의료 업종 6,873억 원(25.2%), 유통/서비스 5,236억 원(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 수 기준으로는 ICT 서비스(25.2%), 바이오/의료(19.1%), 유통/서비스(19.0%)의 순이다.

그림 6 2019년 11월 모태 출자펀드 업종별 신규 투자



번호	구분	비중(금액)
1	ICT 서비스	26.3
2	바이오/의료	25.2
3	유통/서비스	19.2
4	영상/공연/음반	8.4
5	기타	7.4
6	전기/기계/장비	5.1
7	게임	3.0
8	ICT 제조	2.8
9	화학/소재	2.7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ICT 서비스	25.2
2	유통/서비스	19.1
3	바이오/의료	19.0
4	영상/공연/음반	13.6
5	기타	7.1
6	전기/기계/장비	5.5
7	ICT 제조	3.6
8	화학/소재	3.4
9	게임	3.4

출처 : 한국벤처투자

* 총 업체 수 1,213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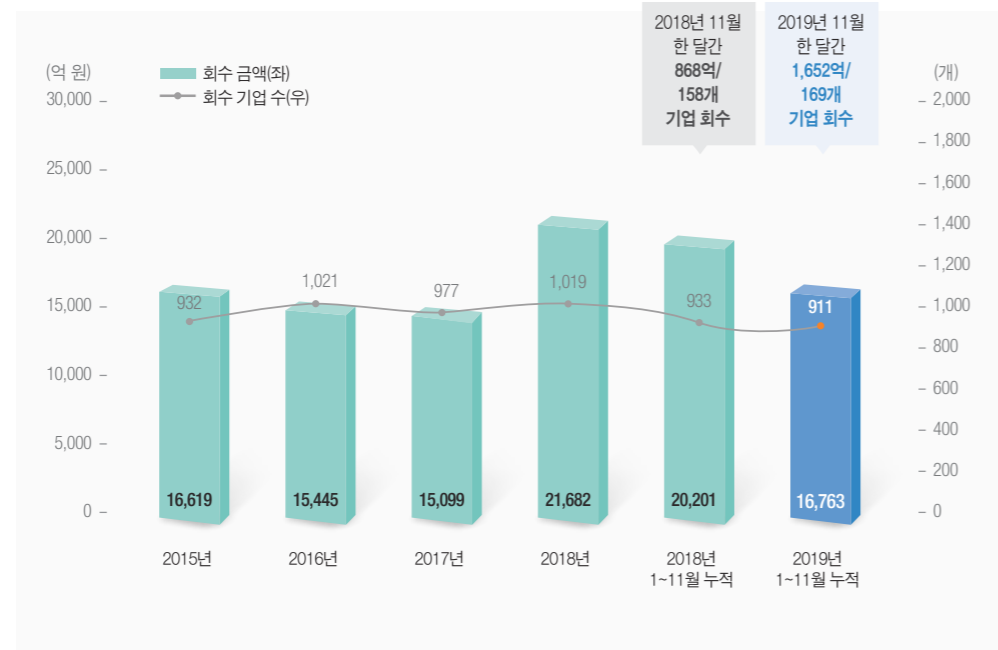
04

모태 출자펀드 회수

모태 출자펀드 회수 동향 (2019년 1~11월)

2019년 1~11월 기간 343개 모태 출자펀드가 911개 기업에 대해 총 1조 6,763억 원(회수원금 8,542억 원, 회수 수익 8,220억 원)을 회수하며 투자 원금 대비 2.0배의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회수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17.0% 감소, 기업 수 기준으로는 2.4% 감소하였다.

그림 7 최근 5년간 및 2019년 1~11월 누적 회수 추이



출처 : 한국벤처투자

* 2019년 11월 말 기준 데이터

회수 금액 및 업종별 회수 동향 (2019년 11월)

2019년 11월 한 달간, 모태 출자펀드의 각 투자기업 회수 건 중 최대 회수 총액을 기록한 건은 295.2억 원을 회수하였고, 투자원금 대비 최대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한 건은 23.0배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의료기기 30.4%(502억 원), 공연/전시/음악 18.8%(311억 원), 소프트웨어 9.6%(159억 원), 화학물질/제품 8.0%(133억 원), 도소매업 6.7%(110억 원)의 순으로 회수가 이루어졌다.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기업 IPO 현황 (2019년 결산)

2019년 한 해 동안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전체 기업 67개사 중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은 42개사로(코스피 신규 상장은 1개사), 공모금액 기준 총 1조 3천억 원의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들을 배출했다.

2019년 신규 코스닥 상장 투자기업들의 설립 이후 상장 시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13년, 평균 공모총액은 317억, 상장일 평균 시가총액은 2,313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 관련 투자 기업이 18개사(43%), IT/SW 9개사(21%), 반도체/전자부품 6개사(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2019년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기업 신규 상장 현황

단위 : 억 원

투자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 연월	상장 연월	공모 금액 (모집총액)	상장일 시가총액	주요 제품/서비스
천랩	코스닥	2009. 11	2019. 12	172	1,491	생명정보 플랫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
메탈라이프	코스닥	2007. 12	2019. 12	91	1,171	광통신, RF통신용 패키지
브릿지바이오	코스닥	2015. 9	2019. 12	420	3,001	펠리노-1 단백질 저해제, 오토택신 저해제
메드팩토	코스닥	2013. 7	2019. 12	604	3,625	항암제 신약 개발
신테카바이오	코스닥	2009. 9	2019. 12	192	2,197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AI신약 개발 및 정밀의료 서비스
제이엘케이 인스펙션	코스닥	2014. 2	2019. 12	180	1,341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산업용 X-ray 관측시스템
리메드	코스닥	2003. 7	2019. 12	78	783	자기장 치료기기
코리아센터	코스닥	2000. 1	2019. 11	458	5,491	이커머스토탈솔루션
노터스	코스닥	2012. 4	2019. 11	100	2,544	비임상시험 유효성(약리)평가
티움바이오	코스닥	2016. 12	2019. 11	300	3,119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면역항암제, 자궁내막증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에스제이그룹	코스닥	2008. 3	2019. 11	317	1,529	강골 가방/모자, 헬렌카민스키 모자
제테마	코스닥	2009. 7	2019. 11	202	1,291	히알루론산 필러 (조직수복용생체재료), 피부과용 레이저 의료기기, 리프팅실 등
라파스	코스닥	2006. 3	2019. 11	256	1,479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품 (의약품 패치, 의료기기 패치, 미용 패치 등)
아이티엠반도체	코스닥	2000. 2	2019. 11	1,313	5,637	배터리 보호회로
미디어젠	코스닥	2000. 6	2019. 11	99	424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티라유텍	코스닥	2006. 8	2019. 10	136	1,122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지누스	유가증권	1979. 3	2019. 10	1,692	11,792	매트리스 및 가구제품

출처 : KRX 상장공시시스템

* SPAC합병 제외,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중소벤처기업 투자 유치 방법 안내

투자 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연월	상장 연월	공모금액 (모집총액)	상장일 시가총액	주요 제품/서비스
캐리소프트	코스닥	2014. 10	2019. 10	82	798	영상 콘텐츠(30.05%), 공연(29.76%), 키즈카페(17.38%), 커머스(12.77%), 라이선스 및 기타(10.04%)
케이엔제이	코스닥	2005. 4	2019. 10	96	803	Edge Grinder, CVD-SiC Ring
엔바이오니아	코스닥	2001. 1	2019. 10	91	898	양전하필터(정수기)
라온피플	코스닥	2010. 1	2019. 10	283	1,583	카메라 모듈 검사기, AI 머신비전, 골프센서
이톤	코스닥	1999. 10	2019. 10	386	1,548	모바일 금융 솔루션, mOTP 개발
올리패스	코스닥	2006. 11	2019. 9	140	3,441	인공유전자 플랫폼 (OliPass PNA) 기술을 활용한 RNA치료제 신약 개발
라닉스	코스닥	2003. 9	2019. 9	96	763	자동차 및 IoT 통신,보안 솔루션
네오크레마	코스닥	2007. 1	2019. 8	124	607	기능성 식품 원료
나노브릭	코스닥	2007. 5	2019. 8	73	675	보안응용제품(M-tag 및 M-pac), 보안소재제품(M-secuprint)
레이	코스닥	2004. 10	2019. 8	200	1,647	디지털 치료솔루션 (CT scan 장비, 3D 프린터), 디지털 진단시스템(X-ray, CT 등)
그린플러스	코스닥	1997. 10	2019. 8	70	420	첨단유리온실, 온실용 자재설치공사, 알루미늄 압출/가공제품
세경하이테크	코스닥	2006. 1	2019. 7	280	938	DECO Film 및 기타 TAPE 제조
윌링스	코스닥	2003. 8	2019. 7	173	1,439	태양광 인버터 등
에이스토리	코스닥	2004. 1	2019. 7	267	1,062	방송프로그램 제작
플리토	코스닥	2012. 8	2019. 7	383	1,437	언어 데이터 구축 및 판매
세틀뱅크	코스닥	2000. 10	2019. 7	796	4,782	가상계좌 중계, 간편 현금 결제
에이에프더블류	코스닥	1998. 9	2019. 7	882	2,203	음극마찰용접단자
압타바이오	코스닥	2009. 7	2019. 6	654	4,233	용역 매출(50.7%), 유전자전달체(32.7%), 압타머 연구용 시약(16.6%)
마이크로디지털	코스닥	2002. 8	2019. 6	161	1,420	바이오 분석 시스템, 메디칼 자동화 시스템
수젠텍	코스닥	2011. 12	2019. 5	180	1,312	체외진단 기기 및 시약
아모그린텍	코스닥	2004. 1	2019. 3	409	1,683	비정질 및 나노결정립을 이용한 자성부품 및 전류센서
지노믹트리	코스닥	2000. 11	2019. 3	1,080	5,456	암 조기진단 제품
더블유게임즈	코스닥	2012. 4	2019. 3	0	11,322	온라인 게임
셀리드	코스닥	2006. 12	2019. 2	396	4,824	항암면역치료백신
천보	코스닥	2007. 10	2019. 2	1,000	4,662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공정 소재, 2차전지 소재, 의약품 소재, 정밀화학 소재
이노테라피	코스닥	2010. 4	2019. 2	90	962	의료용 지혈제, 밀폐제 및 접착제

출처 : KRX 상장공시시스템

* SPAC합병 제외,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모태 출자펀드 투자를 받고 싶었지만
투자 유치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결성된
모태 출자펀드 정보를 담았습니다.

Checkpoint

모태 출자펀드 투자 유치를 위한 체크포인트

- ✓ 출자펀드에는 주요 투자 분야가 존재한다**
투자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모태 출자펀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펀드 목록과 운용사 연락처는 Appendix I 참조) 펀드 선택 시 특히 '주요 투자 분야'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태 출자펀드는 주요 투자 분야가 결정되어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로, 기업의 조건에 맞는 펀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로, '4차 산업혁명' 펀드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 펀드의 경우 창업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이면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주요 투자 분야 설명은 Appendix II 참조)
- ✓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자펀드와 기업의 케미스트리가 맞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이 투자 유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자펀드의 주요 투자 분야를 잘 파악하여 기업의 성격과 주요 투자 분야가 잘 맞아떨어지는 출자펀드 벤처캐피탈에 연락해야 합니다.
- ✓ 투자 협의를 시작하기도 쉽지 않다**
펀드의 투자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에 연락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에 연락한다고 하여 바로 투자 심사를 하고 투자가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 ✓ 그렇지만 두드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벤처캐피탈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그림 1]과 같습니다. 다만, 벤처캐피탈별로 투자 심사 절차가 다양하며 요구하는 자료의 종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IR 전에는 IR 자료, 주주 명부, 재무제표를, 예비 및 본 투자 심사 전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중소(벤처)기업 확인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벤처캐피탈은 내부 투자 심사 절차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부 기준에 따라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벤처캐피탈이 검토 기업에 투자를 결정하고 기업과 벤처캐피탈 간 투자 조건도 이견 없이 조율되면 벤처캐피탈과 기업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림 1 투자 심사 절차



Appendix I

2018년 이후 결성된 모태 출자펀드 목록 및 연락처

아래 목록은 2018년 이후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된 주요 출자펀드 목록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결성된 출자펀드가 투자 여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태 출자펀드 전체 목록 열람은 한국벤처투자 웹사이트(www.k-vic.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1 2018년 이후 결성된 모태 출자펀드(2019년 12월 말 기준)

주요 투자 분야	모태 출자펀드명	모태 출자펀드 운용사	대표번호
가상·증강현실	KAI-KVIC 가상증강현실투자조합	코리아에셋투자증권	02-560-6387
게임	데브-KDBC 문화투자조합	데브시스템벤처스 산은캐피탈	02-551-7903 02-6330-0426
공공 특허 사업화	더웰스 IP기술사업화 투자조합	더웰스인베스트먼트	02-552-1203
공연	P&M문화혁신투자조합	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	02-6925-4591
	일신 뉴코리안웨이브 3호 투자조합	일신창업투자	02-767-6400
관광산업 육성	케이비-에스제이 관광벤처조합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KB증권	02-512-0707 -
	마그나-엑시스 관광벤처펀드	마그나인베스트먼트	02-554-2222
농수산벤처(수산업)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 2호	아이디벤처스	02-556-9300
문화 가치평가 연계	캐피탈원 콘텐츠가치평가 투자조합	캐피탈원	02-595-7450
문화 일자리 창출	KTBN 미래콘텐츠일자리창출투자조합	케이티비네트웍	031-628-6415
	대성 블라썸 일자리 투자조합	대성창업투자	02-559-2900
문화산업 소액 투자 전문	레오 10호 소액투자전문펀드	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02-516-4171
문화 청년콘텐츠	마이더스동아 글로벌콘텐츠 투자조합 2호	마이더스동아인베스트먼트	02-2020-0906
	미시간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7호	미시간벤처캐피탈	02-3445-1310
문화 출판	디에이밸류-에스투엘 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02-558-7550 -
	문화 해외 연계	유니온글로벌익스퍼디션투자조합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유니온K-문화콘텐츠투자조합		유니온투자파트너스	02-594-8470
문화-ICT 해외 진출	케이비 문화 디지털 콘텐츠 해외진출 투자조합	케이비인베스트먼트	02-545-5091
디지털콘텐츠 해외 진출	이에스6호디지털콘텐츠글로벌펀드	이에스인베스터	02-3474-8750
미래환경산업	피씨씨-코나 제1호 미래환경산업펀드	포스코기술투자	02-3457-6300
		코나인베스트먼트	02-508-0610

주요 투자 분야	모태 출자펀드명	모태 출자펀드 운용사	대표번호
민간 제안	메가 청년일자리 레버리지 투자조합	메가인베스트먼트	02-3453-2540
	2019 SBI 일자리창출 펀드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02-2139-9200
	2019 HB일자리기술금융투자조합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02-3448-5622
방송드라마	이앤벤처3호 스마트투자조합	이앤벤처파트너스	02-569-3456
	에쓰비방송콘텐츠투자조합	에쓰비인베스트먼트	02-3445-5011
보건산업 초기기술창업	일신 뉴코리안웨이브 2호 투자조합	일신창업투자	02-767-6400
	시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펀드	시너지아이비투자	02-586-5982
사회적기업	피씨씨 사회적기업2호 펀드	포스코기술투자	02-3457-6300
	엘로우독같이하다투자조합	엘로우독	02-2289-1581
소셜임팩트	코메스2018-2 소셜임팩트투자조합	코메스인베스트먼트	02-558-1996
	CCVC 코리아임팩트 펀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02-2183-2740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다담인베스트먼트	02-563-4050
	미시간글로벌소셜임팩트투자조합	미시간벤처캐피탈	02-3445-1310
	미래 ESV 투자조합 제1호	고려대학교기술지주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02-3290-5894 063-214-0016
	D3 임팩트 벤처투자조합 제2호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02-6239-0110
스포츠 산업 육성	마그나프렌드 임팩트인핸스 펀드	마그나인베스트먼트 프렌드투자파트너스	02-554-2222 02-780-8700
	케이비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케이비인베스트먼트	02-545-5091
	비하이임팩트투자조합1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02-539-7997
	ISU-AJ스포츠투자조합	이수창업투자 AJ캐피탈파트너스	02-3482-2010 02-6240-0440
여성	DKI Growing Star 5호 투자조합	대교인베스트먼트	02-3289-4987
	대교애니메이션전문투자조합	대교인베스트먼트	02-3289-4987
재기 지원	다산에스비에이재기투자조합	동문파트너즈	02-2265-0566
	심본2호 리스타트 펀드	심본투자파트너스	02-3453-0333
조선업 구조 개선	지운 재기 지원 펀드	지운인베스트먼트	031-8023-7393
	나우 에이스 파트너십펀드	나우아이비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02-565-6234 02-6911-1000
중저예산 영화	캐피탈원 조선업 구조 개선 투자조합	캐피탈원	02-595-7450
	대성굿무비투자조합	대성창업투자	02-559-2900
	솔레어 스케일업 영화투자조합 1호	솔레어파트너스	02-5547-0983

주요 투자 분야	모태 출자펀드명	모태 출자펀드 운용사	대표번호
지방기업	케이브릿지2호 동남권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051-731-5222
	대덕특구창업초기투자조합	대덕벤처파트너스	042-485-9684
	보광 밸런스 투자조합	보광창업투자	02-558-2092
	다담 대전 성장지원 1호 투자조합	다담인베스트먼트	02-563-4050
지식재산권 (특허기술 사업화)	시너지 밸류 웨이브 벤처펀드	시너지아이비투자	02-586-5982
	2019KIF-스톤브릿지혁신기술성장 TCB투자조합	스톤브릿지벤처스	02-6182-4700
	케이비-유티씨 혁신 기술금융 벤처투자조합	유티씨인베스트먼트 KB증권	02-783-3347 -
창업 초기	컴퍼니케이-교원 창업초기펀드	컴퍼니케이파트너스	02-568-8470
	인터밸류2호 혁신창업 투자조합	인터밸류파트너스	02-564-0489
	SGI 유니콘 스타트업 투자조합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02-3453-5500
	케이브릿지-코나 혁신 스타트업 투자조합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코나인베스트먼트	051-731-5222 02-508-0610
	뮤렉스퍼플1호 투자조합	뮤렉스파트너스	02-585-1116
	데브-혁신모험초기 투자조합 4호	데브시스템즈벤처스	02-551-7903
	MTI스타트업320펀드	마젤란기술투자	02-6013-0114
	CKD-BS Start-Up 벤처투자조합	씨케이디창업투자 BS벤처파트너스	02-3453-3331 -
	스마트 혁신산업단지 제1호 투자조합	어니스트벤처스	031-776-4770
	DTNI-창업초기 혁신투자조합	디티엔인베스트먼트	02-6009-8600
	BSK 8호 창업초기투자조합	BSK인베스트먼트	02-538-0460
	DKI Growing Star 4호 투자조합	대교인베스트먼트	02-3289-4987
	비엔에이치스타트업3호투자조합	비엔에이치인베스트먼트	02-552-9769
	퀀텀창업초기1호투자조합	퀀텀벤처스코리아	02-6954-1091
	이앤벤처1호 창업초기투자조합	이앤벤처파트너스	02-569-3456
	다산창업초기투자조합	동문파트너즈	02-2265-0566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02-512-0707
	제이엑스 3호 투자조합	제이엑스파트너스	02-569-4661
	원익 2019 Start-Up 파트너쉽 투자조합	원익투자파트너스	02-6446-7125
이에스5호스타트업펀드	이에스인베스터	02-3474-8750	
뉴웨이브 제6호 투자조합	네오플렉스	02-560-9700	
비에이피 제2호 퍼스트웍권 투자조합	비에이파트너스	02-567-0406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메디톡스벤처투자	02-6901-5807	
동훈 테크스타 5호 투자조합	동훈인베스트먼트	02-6250-1500	
LSK 헬스케어 2호 펀드	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02-553-9631	
인터밸류3호 혁신창업 투자조합	인터밸류파트너스	02-564-0489	

주요 투자 분야	모태 출자펀드명	모태 출자펀드 운용사	대표번호	
창업 초기	CKD Start-Up 3호 벤처투자조합	씨케이디창업투자	02-3453-3331	
	에이벤처스 가슴뛰는 창업투자조합	에이벤처스	02-6389-7000	
	신한-스퀘어 스타트업 기술금융 투자조합	스퀘어벤처스	-	
	티인베스트먼트창업초기1호	티인베스트먼트	02-568-8581	
	서울투자 혁신모험 벤처조합	서울투자파트너스	02-566-2690	
	SETI-KIF창업투자조합IV	세미트랩스링크인베스트먼트	02-3484-7081	
	패스파인더 스타트업 투자조합	패스파인더에이치	02-739-9041	
	이앤벤처2호 IP투자조합	이앤벤처파트너스	02-569-3456	
	엘앤에스 10호 Early Stage III 투자조합	엘앤에스벤처캐피탈	02-501-1031	
	(융합콘텐츠)	인라이트 4호 엔젤이아이 펀드	인라이트벤처스	053-341-9222
청년창업	MGI바이오신성장투자조합 1호	메이플투자파트너스	02-3453-2582	
	미시간글로벌파이어나너투자조합	미시간벤처캐피탈	02-3445-1310	
	알바트로스넥스트제너레이션펀드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070-4924-5090	
	유티씨스테이지컨텐츠펀드	유티씨인베스트먼트	02-783-3347	
	케이넷 VALUE-UP 벤처투자조합	케이넷투자파트너스	02-3473-7117	
	콘텐츠기업 육성	MIP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메이플투자파트너스	02-3453-2582
	콘텐츠기업 재기 지원	ISU-콘텐츠기업재기지원펀드	이수창업투자	02-3482-2010
	한-아시아 문화산업 공동발전	미시간팬아시아콘텐츠투자조합	미시간벤처캐피탈	02-3445-1310
	해양신산업	캐피탈원 해양신산업 투자조합	캐피탈원	02-595-7450
		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수림창업투자	02-761-8600
해외IP 수익화	케이비 지식재산 투자조합 2호	케이비인베스트먼트	02-545-5091	
	IDV Global IP Growth 투자조합	아이디벤처스	02-556-9300	
혁신성장	케이비 디지털 이노베이션 벤처투자조합	케이비인베스트먼트	02-545-5091	
	메디치 2018-2 중소선도기업 창업투자조합	메디치인베스트먼트	02-561-1881	
	BNK-케이엔 동남권일자리 창출1호 투자조합	케이엔투자파트너스	02-567-0380	
	유티씨공일팔의일호 (UTC2018-1)사모투자합자회사	유티씨인베스트먼트	02-783-3347	
	가이아혁신성장마케팅투자조합1호	가이아벤처파트너스	02-6451-5656	
IP직접투자	그로스엑셀러레이션펀드	소프트뱅크벤처스	02-3484-9000	
	케이그라운드-홍릉 첨단과학기술사업화 제1호 투자조합	케이그라운드벤처스	-	
M&A	SGI Dolphin 중소벤처기업 M&A 투자조합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02-3453-5500	
	티에스 2018-12 M&A 투자조합	티에스인베스트먼트	02-6250-5700	
	NH수인베스트먼트 혁신성장 M&A 투자조합	엔에이치투자증권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 070-4716-3017	

Appendix II

2018년 이후 결성된 모태 출자펀드의 '주요 투자 분야' 요약

아래 요약은 대표적 투자 대상을 기재해놓은 것으로 모태 출자펀드 별 투자대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표 2 2018년 이후 결성된 모태 출자펀드 주요 투자 분야 요약

주요 투자 분야	투자 대상
가상·증강현실	가상·증강현실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
게임	게임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공공특허사업화	공공특허를 사업화하는 기업
공연	공연예술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
관광산업 육성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 관광산업 특수 분류상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농수산벤처(수산물반)	수산경영체 등에 투자
문화 가치평가연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에 의뢰하여 콘텐츠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를 받은 프로젝트
문화 일자리창출	자본금 10억원 이하이거나,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이거나, 고용인원 10명 이하에 해당하는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벤처기업
문화산업 소액투자전문	원천IP, 문화콘텐츠 초기기업 등 문화산업 전반 소액투자
문화 청년콘텐츠	청년콘텐츠 기업 육성 관련 기업
문화 출판	출판 산업 육성
문화 해외연계	글로벌 콘텐츠 및 글로벌 콘텐츠 관련 기업
문화-ICT 해외진출	해외진출하는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콘텐츠 중소·벤처기업

주요 투자 분야	투자 대상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중소·벤처기업
미래환경산업	환경산업 영위기업
민간 제안	정책목적 및 시장수요에 적합한 투자 분야 및 주요한 출자조건을 수요자가 직접 제안
방송드라마	방송드라마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
보건산업 초기기술창업	보건산업 분야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사회적기업	1.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2.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3.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대상 중 존속기간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설치된 사회적기업투자조합 투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투자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소셜임팩트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산업진흥법상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 특수 분류상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여성기업	여성의 창업,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및 여성고용 촉진 지원
애니메이션·캐릭터	애니메이션 또는 캐릭터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재기 지원	폐업 사업주 또는 폐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였던 자가 재창업 (타인 명의의 재창업 포함)한 기업에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 또는 CTO로 재직 중인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투자·M&A 성공 사례

주요 투자 분야	투자 대상
조선업 구조 개선	조선업 관련 업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저예산 영화	순제작비 50억원 이하의 한국영화 또는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한국영화로서, 영진위 독립·예술영화 인정, 국제영화제 출품 등 영화적 완성도와 작품성이 기대되는 작품
지방기업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함 (해외IP 수익화) 상기 투자 대상이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이 창출·출원·보유한 해외IP 수익화 프로젝트 (IP 직접투자) 상기 투자 대상에 투자하면서 IP담보투자(Sales&Licenses-back)에도 투자
창업 초기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 (융합콘텐츠) 첨단 디지털콘텐츠 기술(VR·AR, 홀로그램 등)과 주력산업(제조, 의료, 국방, 교육)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초기기업
청년창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또는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콘텐츠기업 육성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벤처기업
콘텐츠기업 재기 지원	폐업 사업주 또는 폐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였던 자가 재창업(타인 명의의 재창업 포함)한 기업에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 또는 총괄로 재직 중인 중소기업, 사드피해 인정기업, 용자 연체 중인 기업
한-아시아 문화산업 공동발전	아시아 진출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
해양신산업	해양 신산업 또는 첨단기술을 융합한 해양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성장성 높은 중소·벤처기업
M&A	M&A 및 Buyout 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인수에 투자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유명 벤처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거나, M&A가 된 성장성 있는 투자기업을 발굴하여 성공사례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여행 가이드처럼 실시간으로 대응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좋을텐데...’
딱 거기서 시작됐다, 트리플의 역사는,
대세를 쫓기보다 사소한 차이로
야기되는 불편을 간파해 사업을 구상할 때,
공중분해의 위기에 직면했던
상상들은 ‘역사’라는 이름으로 변모한다.
여기에 ‘투자’라는 날개를 달며 이들은
전무후무한 성장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writer_ 김홍은

트리플
History

2016

01월 티티카카 설립

2017

05월 트리플앱 V1.0.0 베타 오픈
(7개 메인 도시: 오사카,
홍콩, 하와이, 도쿄, 싱가포르,
괌, 방콕)

07월 트리플앱 정식 오픈(35개 도시)

09월 도구모음
(환율, 길찾기, 시차) 추가
* 서비스 도시 72개

투자 유치의 트리플 달성을 향해



한 번 더 뛰어오르는 트리플

이상용
최고재무관리자(CFO)





여행자를 위한, 여행자의 의한 서비스를 만들다

패키지여행은 싫지만 자유여행을 준비하려고 하면 한숨부터 폭 내쉬는 사람들이 있다. 시작이 반이라고 버킷리스트로 삼은 여행지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마저 없으면 말 그대로 0에서부터 시작해 소수점 단위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10이라는 만족도에 닿기까지 산발한 정보를 끌어모으고 또 신빙성을 바탕으로 선별하는 일이란 그 과정을 즐기는 이들에게조차 만만하지가 않다. 이에 해결사를 자처하며 슈퍼맨처럼 나타나 로켓 같이 성과를 쏟아올린 기업이 있으니, 바로 여행 플랫폼 '트리플'이다. 트리플은 믿을 만한 정보를 각자의 여행 스타일에 맞게 큐레이팅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에는 미비하다는 점에 동의한 이들이 투자금을 모아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한 식견은 탁월했다. 2017년 7월,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고 1년 6개월 만에 300만 가입자를 돌파한 것이다.

“여행자들의 애로에 공감하고, 유저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구성한 것이 단기간에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봅니다.”

이상용 최고재무관리자(이하 CFO)가 호방하게 말했다. 트리플은 여행 준비 단계부터 여행 중, 여행 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장소와 시간에 맞춰 여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했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상품을 소개하고 큐레이션을 해주는 형태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하루 2,500개가 넘는 유저들의 후기가 등록된다. 서비스 출시 후 지금까지 쌓여온 것만 74만 개가 넘는다. 트리플은 후기들을 적극 활용했다. 여행자들의 리얼한



의견이 개선해야 될 사안, 실제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데 핵심이라고 봤다. 여행자클럽을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행자클럽은 후기 작성, 잘못된 정보 수정 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모으면, 그에 따라 등급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 전용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덕분에 이들은 나날이 성장했다. 2019년 말 기준 누적 회원 수 550만 명을 기록했고, 이제 서비스하는 도시는 유럽, 미주, 동남아시아, 중국, 러시아, 일본, 오세아니아 등 세계 180곳에 이른다. 유저들과의 교류가 사업 성장에 기폭제가 된다는 점을 체감한 뒤부터는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도시의 콘텐츠를 오픈할 때면 교민, 유학생 등 이른바 각 도시의 '전문가'라 해도 좋을 사람들과 협업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 장차 이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행자들의 애로에 공감하고, 유저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구성한 것이 단기간에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봅니다.”



2018

- 02월 트리플 여행자 클럽 개시
- 03월 '트리플'로 사명 변경
- 04월 시리즈A 120억 투자 유치
누적 가입자 100만 달성
- 05월 일정판 기능 추가
- 08월 T&A 판매 및 결제 내재화
서비스 메인 개편
동행자 기능 추가
- 09월 누적 가입자 200만 달성
- 10월 일본 돈키호테 쿠폰 제휴
- 11월 호텔 판매 및 결제 내재화
홍콩 관광청x트리플 MOU
- 12월 누적 가입자 300만 달성
* 서비스 도시 111개

2019

- 2월 지도 경로 보면서 일정 짜기, 항공편 입력
- 3월 시리즈B 300억 투자 유치
- 4월 네이버 여행검색 콘텐츠 연동 오픈
- 5월 스카이스캐너 API연동, 렌탈카스닷컴 제휴
- 6월 누적 가입자 500만 달성
체크리스트 오픈
호텔 씨트립, 마이더스 연동
- 8월 T&A 판매 도시 확대 (클룩, 와그 연동)
- 9월 누적 가입자 500만 달성
쿠폰 시스템 오픈
- 10월 가계부 오픈
- 11월 서비스메인 개편
호텔 아고다 연동
- 12월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 오픈
* 서비스 도시 177개
호텔부킹닷컴 연동

시리즈 A에 이어 B 투자까지, 순조롭게 안착

올해로 4년차 스타트업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한 트리플, 그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고 한다.

“2018년 4월에 시리즈 A에 선정되며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금 조달이나 관련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리즈 A 투자가 길을 열어준 덕분에 시리즈 B에서는 기업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훨씬 높게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 설립 시에는 전략적 투자자인 하나투어로부터, 그리고 시리즈 A로 네이버 등에 120억 원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시리즈 B에서 KTB네트워크,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네오플렉스, 키움인베스트먼트, KB증권, 미래에셋벤처투자, B&A에셋, AJ캐피탈파트너스 등으로부터 300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들 중 한국투자파트너스, KB증권, 아주아이비투자는 시리즈 A와 B 모두 투

자했다고 이상용 CFO는 설명했다. KTB네트워크의 장성엽 부장은 “여행 준비 때만 접속해 최저가 상품을 검색하는 여타 온라인 여행 서비스와 차별화된 이용자 경험을 제공해 여행 콘텐츠도 상시 서비스가 가능함을 입증했다”며 “국내 외 OTA(Online Travel Agency, 온라인 여행사) 및 현지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연계와 이용자 편의 기능을 강화할 경우 빠른 성장이 기대돼 투자를 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투자를 진행했던 네이버 실무 담당자는 트리플의 콘텐츠와 UI가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했다. 해외여행 시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 포털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들도 수집하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트리플 앱은 정제된 콘텐츠들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전략적 투자자 중 하나인 네이버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해당 회사의 성장 가능성

“ 2018년 4월에 시리즈 A에 선정되며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금 조달이나 관련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리즈 A 투자가 길을 열어준 덕분에 시리즈 B에서는 기업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훨씬 높게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과 함께 자사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는데, 트리플이 가지고 있는 여행 관련 정제된 콘텐츠가 네이버의 검색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투자 이후, 네이버 여행 검색 서비스에서 트리플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노출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트리플 서비스에 연결하는 콘텐츠 제휴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용 CFO는 시리즈 B 투자로 사업을 다음단계로 키우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IT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함으로써 더욱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투자로 얻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시리즈 B 투자 이후, 공신력이 높아지면서 많은 서비스 공급 업체가 러브콜을 보내왔다. 트리플은 호텔, 항공, 렌터카 등의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내기보단 각 분야 전문 업체들의 상품을 한데 모아 고객들이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스카이스캐너, 호텔스닷컴 등과 같이 업체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 다만 ‘해외여행 모바일 컨시어지’를 목표로 하는 만큼, 현재 국내 OTA 시장 안에서는 가장 다양한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 한 단계씩 올라설 때마다 동반성장을 꿈꾸는 기업들이 손을 내밀어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매달 MAU가 10%씩 늘어나고 있어 현재 100만 명에 달합니다. 사업 확장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증폭해 올해는 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력 업체들과 시너지를 내서 여행 산업을 부흥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사업을 넘어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과 변화를 숙고한 이상용 CFO가 러브콜을 달가워하는 이유다. 국내의 한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이 해외여행 시 소비하는 금액만 31조 원에 달한다. 현금까지 합산하면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해외 OTA 업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우리나라 여행 산업이 위축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협력업체와 상부상조해서 꼭 여행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싶다는 이상용 CFO. “많은 관심과 투자 부탁드립니다”는 투자자들을 향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선명한 목표가 빛은 ‘투자 마스터’

트리플은 분기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주요 주주들과 만나고 매달 리포트를 보내며 회사 성장에 대해 함께 고민해나간다.

탄탄대로는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지금의 트리플을 만들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이따금 투자받는 노하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것보다 만들어내려고 하는 서비스의 목적이 분명하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목적이 뚜렷하면 가야 할 길 또한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헤매지 않고 필요한 것을 찾아나설 수 있다는 것. 트리플 역시 ‘한국인의 NO.1 해외여행 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다. 더불어 다양한 투자자보단 서비스에 관심이 있고, 관련이 있는 투자자들과 만나 도움을 받을 것,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준비할 경우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볼 것을 당부했다.

트리플은 시리즈 B 투자라운드에서 유치한 자금을 서비스 도시 확장 및 마케팅, 호텔, 투어, 액티비티 상품 예약 시스템 확장에 사용하고 있다. 올해 중순경에는 시리즈 C 투자 유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광고나 제휴카드사, 면세점, 여행자 보험사, 현지 여행사 등 제휴를 맺었을 때 Win-win이 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받겠다는 계획이다. 이상용 CFO는 MAU(Monthly Active Users; 월간 실사용자 수)가 비즈니스에 잘 활용될 수 있게 구축이 되고,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면 시리즈 C에서 원하는 기업가치로, 원하는 만큼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OTA 시장의 경우 해외여행이라는 목적과 도시, 숙소, 음식 등 명확한 니즈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의미 있는 CTR(클릭률)이 높은 편이다. 그에 맞게 상품 테스트를 하며 서비스를 구축해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매달 MAU가 10%씩 늘어나고 있어 현재 100만 명에 달합니다. 사업 확장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증폭해 올해는 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여행자들이 찾는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그날까지 주요 멤버 몇 명이 모여 시작한 회사가 어느새 108명 규모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사업 확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채용 중이다. 그 사이 함께한 직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진 않았는지 묻자 이상용 CFO는 “이사회만을 위한 특혜는 없다”고 단호히 대답했다. 그러나 모든 임직원이 주식 또는 스톡옵션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침은 있다. 트리플의 모든 임직원들은 직원인 동시에 주주인 것이다. 이들은 안정된 직장을 떠나 트리플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하고 있는 ‘전우’들로서 모두 함께 노력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함께한 투자자와 임직원들이 고루 나누어 가지길 꿈꾼다. 그것의 일환으로 매년 회사의 시장가치, 투자유치, 스톡옵션 등과 관련해 직원설명회를 열어 임직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트리플은 여행사 출신보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 출신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전체 인력의 절반가량이 개발 인력이다. 실제 이상용 CFO의 경우도 삼성SDS와 네이버 등 국내 대표 IT 대기업을 거쳐 트리플에 합류했다. 이러한 특징이 정밀한 위치 기반 데이터 분석과 큐레이션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기존 오프라인 여행사들이 패키지 중심의 여행상품에서 자유여행 중심의 여행상품으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틈새를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트리플에게 특정한 경쟁업체는 없다. 업계에서는 가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한다. 독보적인 서비스를 구현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상거래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본다면 글로벌 OTA 업체들과 경쟁 구도가 조성된다. 하지만 현재는 높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애를 쓰기보다 업체들과 상생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형성하고, 한국형 ‘트립 어드바이저’의 위치를 견고히 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30조 원 이상의 한국 해외여행 시장에서 5년내 20%이상의 점유율을 트리플에서 창출해 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2020년에는 호텔, 액티비티, 현지 투어에 이어 항공 예약 서비스를 오픈하고 해외 진출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국인을 위한 해외여행 플랫폼으로 자리를 확고히 한만큼 2020년 대만진출을 시작으로 태국, 일본, 중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라는 이상용 CFO. 더불어 국가별 독립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각 국가의 문화가 반영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SNS와 결합된 형태로 발전시켜 유저들의 소중한 여행 경험을 간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끝없이 꿈꾸고 대범하게 행동하는 한편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천천히 살피는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트리플의 목표가 거뜬히 이뤄질 듯하다. 간절함을 향한 솔한 선택들이 기적을 만들어낸단지 않던가. 트리플의 운명적인 순간이 목전에 있음에 틀림없다.